

Issue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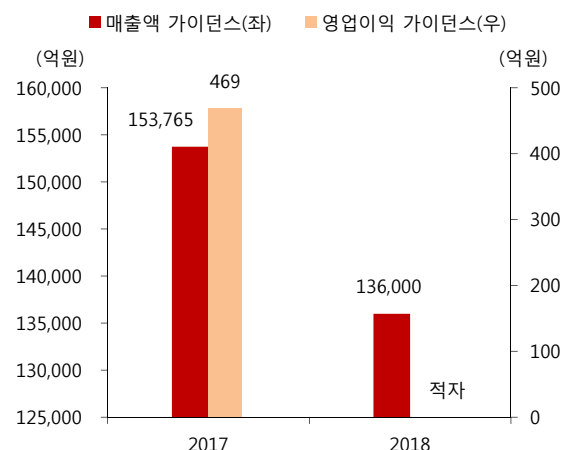
- ✓ 삼성중공업과 유사한 현대중공업의 2018년 적자 전망
- ✓ 현대중공업의 수주잔고가 많아 영업적자 규모는 더 클 것임
- ✓ 후판 가격 추가 인상 여력이 있어 적자 폭 확대 가능성 상존

삼성중공업과 한 배를 탄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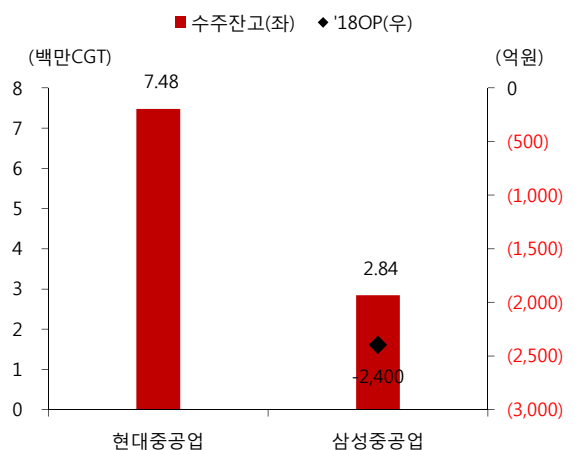
지난 12월 26일 현대중공업은 약 1.3조원의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4Q17에만 약 3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영업이익은 469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고 2018년 영업적자는 불가피함을 밝혔다. 한편,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지난 12월 6일 후판 가격 인상분을 매출원가에 선반영해 2017, 2018년도 영업적자 전망 공시를 낸 바 있다. 현대중공업 역시 수주 부진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후판 가격 인상 영향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의 수주잔고는 748만 CGT로 삼성중공업(284만 CGT) 대비 약 2.6배 많아 후판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다면 2018년 현대중공업의 영업적자 폭은 삼성중공업의 -2,4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현대제철은 내년도 비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을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선용 후판 가격의 추가 인상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사 모두 상선 부문에서 적자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수주잔고에서 삼성중공업 대비 상선 비중이 높아 후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업이익 변동 영향이 조금 더 크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도 영업적자를 전망함



수주잔고 감안시 삼성중공업보다 적자 폭 클 것



자료 : 현대중공업, SK 증권

자료 : Clarkson Research,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